

태국소설 『짠 다라』 읽기 : 작중인물의 업보관계를 중심으로*

김 영 애 **

I. 서론

흔히 소설 『짠 다라』를 두고 고급 성애소설 또는 에로소설이라고 한다.¹⁾ 그래서 성애부분을 부각시켜 영화로도 만들어졌지만, 주인공 짠 다라와 다른 가족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화해를 매우 사실적

* 이 연구는 2004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대 태국어과 교수 yoaikim@hanmail.net.

1) 작가의 서문에 “…… 저는 거친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를 양날을 가진 언어를 사용하는 작가로 보아도 좋습니다. 양면검으로 저는 그 존재하는 윤리도 덕군자들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떠들어대는 부류에게 예리하게 도전할 것입니다. …… 제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성숙한 사람, 또는 성인을 위한 오락(에로소설)소설을 쓴다고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며 자신이 양날을 가진 언어를 사용하여 겉으로만 잘난 척하고 속은 썩어 버린 부류층의 가면을 벗기려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 작품을 두고 신문 <마띠촌>은 “예술이 성교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쓰여 졌고 훌륭히 해냈다”라며 칭찬했고, 비평가 룡 왕싸완은 ‘정교한 성애’라고 극찬했다. 이 소설은 여러 차례 영화로 제작되었는데, 최근에는 2001년에 논씨 니미붓 감독에 의해 영화로 제작되어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수상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으로 그린 가족소설 및 심리소설²⁾로서의 성격도 간과할 수 없다. 이 소설은 1964년에 태국의 주간시사지인 <싸얌랏 싹다위짠>에 연재되었던 소설로, 연재가 끝난 1965년에 뿌라판싼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2002년에는 12판을 내고 있는 소설이다.³⁾

이 소설이 지상에 처음 발표되었을 때 태국 문예계와 태국사회는 매우 흥분했으며 독자, 학자, 비평가들의 평도 무성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작가의 화려하고 섬세한 문체를 비롯하여, 표현의 섬세함과 정교함, 어휘의 신선함, 은유 또한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외에도 주제를 태국사회가 안고 있는 치부이며 뜨거운 감자였던 부유층의 성적 욕망과 성생활을 주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너무 공공연한 문제여서 그 사회의 구성원은 다 알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감히 들추어 말하지 못하는 어두운 사실을 뒤집어 내보여 소재로 삼은 것이다.

작가 웃싸나 플렁탐⁴⁾은 태국의 1920-40년대를 시대적 배경으로, 방콕

2) 이러한 측면에서 이 소설을 정신분석적인 심리소설로 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작가의 지인으로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여의사는 의사의 입장에서 “본인은 소설 『짠 다라』가 그 아름다움이나 질로 보아 우수하고 뛰어난 성애소설이며 정신분석적인 심리소설이라고 본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보다 더 훌륭한 소설은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3) 태국의 일간지에는 연재소설이 실리지 않는다. 그래서 신문 연재소설은 주간논평지에 실린다. 당시 지식층이 즐겼던 일간지 <싸얌랏>신문사가 목요일마다 발간하는 주간논평지 <싸얌랏 싹다위짠>에 <짠 다라 이야기>가 1964년 4월 21일부터 연재되어 독자로 하여금 목을 빼고 일주일을 기다리게 만들었다고 전한다.

4) 본명은 뿌라문 우니하툼이다. 그는 생전에 큰 각광을 받지 못했으나, 사후에 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알려졌다. 그러나 그의 소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편이다. 그의 가족이 밝힌 것과 그 자신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종합해 보면 그의 생애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1919년 6월 17일 방콕에서 출생한 그는 1988년 1월 11일에 방콕에서 사망했다. 그는 시신을 씨리랏 병원에, 안구는 적십자사에 기증한 깨끗한 삶을 실천한 작가이다. 그는 평생 필명을 두 개 사용했는데, 하나는 ‘웃싸나 플렁탐’으로 단편과 장편 등의 소설류에 사용하였다. 또 하나는 단편집 <탄마니 덕화>에서 뿌라문 우니하툼이 사용한 ‘말라툼운’이라는 필명이다. 이 필명은 그 후로는 사용하지

을 공간으로 한 이 소설의 등장인물 짠 다라, 분르엉, 깨우, 쿤루엉, 왓 등을 통해 부유한 집안의 일부다처제, 혼인과 가문의 명예라는 당시 가치관, 그리고 집안 내 구성원간의 성문화를 매우 선명하고 섬세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려내었다. 2차 세계대전 직전의 태국 부유층 사회의 한 단면, 다시 말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진 짠 다라 어머니의 쿤루엉과의 결혼과 그 결과 및 여파를 성에 대한 당시 한 가정의 풍속도로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짠 다라가 불혹의 나이라는 사십 고개에 접어들어 어느 날 남성으로서 자신의 기능이 다 했음을 발견하고 절망 끝에 의사를 찾아간다. 의사는 그를 치료하는 차원에서 그에게 천천히 자신의 일생을 적도록, 그럼으로써 일생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도록 권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고 복수하려 했던 계부 쿤루엉보다 더하면 더 했지 조금도 뒤지지 않는 운명적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문득 발견한다.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처지가 모두 업보임을 깨닫고 가족의 모든 고통을 받아들여 그들의 안식처 내지 의지처가 된다. 필자는 이러한 면에서 이 작품을 성애소설이라기보다는 태국인의 불교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이 내보이는 소설이라고 보았다.

않았다. 본명 ‘쁘라문 우나하툼’은 번역물에 사용하였다. 그의 번역은 매우 정교하고 자기 자신만의 언어로 쓰기 때문에 원작가를 잊을 정도라는 평을 듣고 있다. 그가 번역한 루이 라무의 서양 카우보이 소설 <찰라코>는 번역가 모두가 경전으로 삼고 있는 작품이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무협소설을 <싸얌랏 싹다위짠>에 발표했다. 하지만 그가 중학생이란 사실이 신문에 알려지면서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동안 토지측량국에서 일하다가 자신이 하고 싶어 하던 신문사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신문사가 문을 닫자 그는 가족 부양을 위해 공무원시험을 보았고 농협에서 근무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그는 적성이 맞지 않는 공직을 그만두고 다시 싸얌랏 신문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글쓰기 연습을 꾸준히 했고, 그 시절 화가의 꿈을 키우기도 했었다.

본 연구는 태국사회가 들춰내기 꺼리는 실상을 두 사내-쿤루엥과 짠와 집안 내 네 여인 — 이모, 히아썬스, 분르엥, 그리고 깨우 — 사이에 얽힌 삶을 통하여 불교의 인과응보 또는 업보라는 가치관의 차원에서 고찰해 보고, 아울러 당시 태국사회의 한 단면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려고 한다.

II. 소설 인물들의 성격과 태국 사회구조의 해부

태국은 불교국가이다. 일상생활에서 태국인들은 ‘거짓말을 삼간다, 살생을 삼간다, 간음하지 않는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치하지 않는다’는 5계를 기본으로 지키며 선업을 쌓으려고 노력한다. 업보와 내세를 믿기 때문이다. 비록 전생에 악업이 많아 현생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한다 해도 인내하고 노력하여 선업을 많이 쌓으면 내세에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침마다 탁발 나온 승려에게 음식과 향초를 시주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탐분(merit-making)’을 한다. 태국인들 사이에서 “탐디 다이디 탐추어 다이추어”, 즉 “선업을 쌓으면 복(선과)을 받고, 악업을 쌓으면 벌(악과)을 받는다”라는 말이 크게 회자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탐분과 5계 준수는 사회적 지위나 빈부 연령 성별을 가리지 않고 행해진다. 그러나 실제로 또는 내면적으로는 부유층일수록, 또 지위가 높을수록 자기 아내 이외의 여성과 성생활을 즐기고 있어 문란하고 난잡하기까지 하다.

본 소설에는 짠과 쿤루엥이라는 남성이 등장하고, 왓, 하이썬스, 깨우, 그리고 분르엥이라는 여성이 등장한다. 이 인물들의 성격과 유형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보면 아래와 같다. 성의 측면에서 쾌락을 중시하며 악업을 거리낌 없이 자행하는 쿤루엥과 그의 딸 깨우, 사십 고개에 들어서서 자신의 업보를 되돌아보고 선행으로 소멸시키려고 노력하는 왓과

짚, 그리고 소극적 의미에서 악업을 짓는 완전한 여인 분르영과 선업을 쌓는 모티프가 되는 마음의 구원상인 하이썬스가 있다.

1. 도착적 성중독과 악업의 결과 : 쿤루영과 깨우

(1) 인면수심(人面獸心) 인물 쿤루영의 악업과 말로

1920년대 초 태국의 사회는 전제군주를 정점으로 한 신분사회였다. 19세기 중반부터 왕실주도로 전개된 태국의 근대화는 경제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를 야기하여 1932년에 민주주의 도입이라는 정치적 변화를 유도했다. 그러나 60-70년간 진행된 근대화의 영향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만 집중되었을 뿐 중산층 이하나 지방에는 미미했다. 그러므로 1930-40년대의 태국사회는, 특히 일반 서민계층은 여전히 전근대적인 사상과 의식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한 변화 속에서도 태국사회의 신분적 고하를 가리지 않고 여전히 계승되어 온 가치관의 하나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우월적 인식으로, 남성은 일인 이상의 아내를 둘 수 있으나 여성에게는 일인 이상의 남편을 둘 수 없다는 것이었다.(Boonyong 1989: 132). 일부다처제(Luangwichtwathakan 1964: 77-78)⁵⁾가 남성의 입장에서는 권위와 재력의 상징이기도 하였다(Cerves 1963: 59).

전제군주체제에서 기존의 양반층과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새로이 형성된 중산층 또는 신흥양반층은 왕족에 버금가는 부귀영화를 누렸고, 집안의 가문과 체면 유지가 최우선의 가치관이었다. 그러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봉건의식 속에서 여성에게는 아버지과 남편, 그리고 아

5) 이러한 가치관에 대해 루영위썬와타칸은 “아유타야 말기에 지속된 전쟁으로 남성의 수가 감소했으므로 어쩔 수 없이 한 남성이 여러 명의 여성을 소유하게 했을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우리나라 식의 삼종지도가 중요 덕목으로 교육되었다(Charan 1983: 80).

“여자는 물소, 남자는 인간이다”(Rachanikon 1993: 102)라는 당시 태국인의 가치관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집의 가장은 그 집안에서 왕의 위치에 있었다. 만일 그 집안이 부유하고 가장의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또 가장이 풍류를 즐기면 그 집은 바로 왕궁을 방불케 하는 하렘이었다. 1839년에 태국에 와서 선교활동을 했던 프랑스 신부 빨레구어(Jean Baptiste Pallegoii 1963)는 “보통 부자들은 첩을 이십 명, 삼십 명, 사십 명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수를 두고 있었다. 왕은 아마 백여 명에 달했을 것이다. 왕은 섹스를 위한 것보다는 자신의 위엄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십 명에서 사십 명에 달하는 여성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십 명 정도를 첩으로 두었다는 이야기는 1930년대 이후에 씌어진 근·현대소설에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부자일수록 또 사회적 권위와 영향력이 높을수록 여전히 첩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 한 사람이 이토록 많은 여성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렘 같은 사회에서는 양성애자는 물론 동성애자, 특히 여성끼리 즐기는 레즈비언이 적지 않았을 것임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성은 ‘남성의 노리개’로서 혼전순결이 매우 중시되었고 배우자 선택에서도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부모의 뜻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혼도 남편이 있는 한 여성이 요구할 수 없었다(Boonyong 1989: 322).⁶⁾

6) 1908년까지 태국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간주되었다. 여성은 남편 재산의 일부였다. 미혼여성은 부모 마음대로 매매할 수 있었다. 기혼녀도 남편이 버리면 그대로 과부가 되었고, 그 즉시 사회로부터 질시를 받았다. 여성의 의무는 남편의 수발뿐 아니라 침대에서의 욕구도 들어주어야 했고 남편의 가르침에 복종해야 했다. 이러한 일부다처제의 악습은 라마 6세 때에 일부일처제가 공포되며 줄어들었으나, 경제가 발달하자 그 취하는 여성의 수에 있어서는 줄었지만 악습은 여전히 있었다. 1976년까지는 남편의 첩 문제로 여성이 이혼을 제기할 수 없었다. 여

또한 집안의 가문과 체면을 중시하는 상류층 태국사회에서 여성의 임신은, 더군다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은 그 가문의 수치였다.

짤의 어머니, 다라는 방콕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명문의 무남독녀 외동손녀이자 매우 빼어난 미인이었다. 다라가 방콕에서 기차로 서너 시간 떨어져 있는 피짖에 갔다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임신을 하자 집안에서는 쉬쉬하며 신랑감을 물색했다. 다라의 임신을 받아들이는 대신 다라가 살고 있는 방콕저택을 달라는 요구를 내세우고 그 신랑감으로 들어온 사람이 바로 본처와 이혼한 남성, 쿤루엥이었다. 소설 속에서 쿤루엥의 과거는 일체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다라 집안의 명예에 걸맞는 작위(고급관료라는 신분)와 소지품이 든 가방 두 개를 들고 그는 그 저택의 대문을 들어서서 임신 삼 개월인 다라와 결혼했다.

그러나 다라가 아기를 낳다가 사망하고 아기만 살아남자, 쿤루엥은 아내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분노를 아기에게 쏟아 붓고 그 사내아이를 이름 대신 “저주받을 징그러운 놈”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짤라이”의 “짤”이라고 부른다. 다라의 죽음에 이어 명실 공히 집안의 일인자가 된 쿤루엥의 말에 그 저택구성원은 아무도 반대하지 못한다. 그 아이의 이름은 그대로 “짤”이 되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뜻에 거슬리는 사람을 집안에서 내쫓고 하렘의 왕처럼 살았다(Utsana 2001: 192-193).

다라가 사망하자 쿤루엥은 집안에서 짤에게 가오리꼬리 회초리로 화풀이를 하였지만, 외형적으로는 5년간 상복을 입고 법적으로 다른 여자와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훌륭한 남편으로서의 외모를 과시했다. 그리고 공직에서 퇴직한 후 연금으로 생활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라의 재산을 관리하여 자기 것으로 삼는 위선적인 위인이 바로 쿤루엥이었다.

성의 지위는, 남녀관계라는 측면에서만 볼 때 남편의 몸종과 같은 입장이었다.

그 이후 다라의 저택에서 쿤루엥은 집안의 여인·남편이 있는 여자들 아니든, 젊은 여인이든, 나이든 여인이든 가리지 않고 들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은 채 마음대로 성행위를 벌였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 엄마의 신분⁷⁾에 따라 양육되었다. 그 집에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많은 것은 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집안의 여자 외에 그는 고아나 가난한 집의 여아들을 데려오거나 사서 양육하여 어느 정도 성장하면 집에서 부리고 성⁸⁾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저택은 하렘을 방불케 하였다.

짚이 다섯 살쯤 되었을 때 그는 다라의 다비식을 했고, 그 후 곧바로 다라의 시신을 안치했던 녹색목조건물을 다라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절에 시주한다는 명목으로 헐어내고 신식 이층양육을 지어 전처인 분르엥과 장성한 아들을 불러 한 울타리 안에서 살았다. 그 후에도 그의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성행위는 계속되어 보통 남성들이 출생과 더불어 받았다는 오천 발의 총알을 오십대도 되지 않아 다 써버린 남성이 되었다.

처제인 왓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의 딸 깨우가 뿌리를 출산한 후 왓이 여승이 되어 떠나고, 깨우도 레즈비언이 되어 마음대로 행동하자 그는 전처 분르엥의 거처로 옮겨 무력한 노인의 삶을 살며 집안 가장의 자리에서 밀려난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분르엥과 짚이 성행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어 버렸다.

17살까지 짚의 호적상 계부였던 쿤루엥은 당시의 관습대로 여러 명의 여성과 성을 즐겼으나 조금도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킨 남성이다. 그가 책임져야 할 가족·특히 왓과 짚에 대한 책임감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 것 외에는 없다. 그들에 대한

7) 태국인들은 본래 성(姓)이 없었고 이름만 있었다. 그저 ‘어디 사는 아무개’ 또는 ‘어디 사는 누구의 아들 딸 아무개’였다. 라마6세(1910-1925) 때 근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성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나 모든 국민이 일시에 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가정의 어른으로써, 또는 계부지이지만 아버지로서의 사랑이라는 감정은 없다. 오직 이기심만 있을 뿐이었다.

한마디로 쿤루엥은 자신이 식물인간으로 늙게 될 때까지 그러한 잠재의식 속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잔인하고 이기적이며 오로지 성욕만을 추구하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다. 앓는 아이, 짚의 옆에서 다라에 대한 죄책감과 짚에 대한 불쌍함 때문에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아이를 기르는 왓을 온갖 협박으로 겁탈한 인간이며, 이상한 움직임과 소리에 잠이 깬 짚이 그 행위를 바라보는데도, 아이의 눈을 가려주는 왓의 손을 저지하며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한 인간이었다.

(2) 레즈비언 깨우의 숙명적 비극

깨우는 쿤루엥과 짚의 이모 왓 사이에서 태어난 무남독녀다. 집안에서 쿤루엥과 왓을 제외하고 상전으로 대접받은 인물이다. 짚은 외형적으로는 ‘도련님’이나, 쿤루엥의 박대 속에서 성장하지만 ‘아가씨’로 불리는 깨우는 쿤루엥의 극진한 편애 속에서 ‘공주처럼’(Utsana 2001: 225) 성장했고, 집안에서 쿤루엥 다음으로 영향력을 가져 그녀의 고집은 엄마인 왓도 꺾지 못했다.

짚은 깨우의 출생을 매우 기뻐하고 동생으로 사랑하고 대하려 했으나 깨우는 쿤루엥의 영향과 교육을 받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짚의 사랑에 답을 주는 대신 미워하며 한 자리에 앉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짚을 더러운 동물 보듯이 멸시했다. 왓이 짚을 오빠로 받아들이도록 욕박지르기도 하고 타일러도 보았으나 헛수고였다. 그녀 뒤에는 짚은 눈길 한 번 줄 가치조차 없는 미물이라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쿤루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짹짹⁸⁾ 차는 법을 배울 때, 즉 아주 어렸

8) 태국의 남녀 어린애들의 국부가리개로, 은으로 만들었으며 보통 3-4살까지 찼다. 더운 나라에서 벗고 지내는 어린애들에게는 필수품이었으나 지금은 사라졌다.

을 적부터 그를 “짠”이라고만 불렀다. 짠을 보는 그녀의 눈빛과 태도는 어린 여자아이의 오만함과 뭔가 시비를 걸려는 불안함이 뻔 사내아이의 표정이었다.

깨우는 조숙하고 숙성했다. 그녀의 얼굴과 피부는 아버지를 닮아 희고 아름다웠으며, 얼굴의 균형 잡힌 확실한 윤곽과 풍만한 체구는 이모를 닮았다. 그리고 성품은 하나부터 열까지 쿤투엥을 빼다 박았을 뿐 아니라 성에 대해 밝은 것도 닮았다. 나이가 들면서 그녀는 짠을 박대했으며, 쿤투엥이 너무 애지중지 기른 까닭에 오만하고 남을 멸시하며 해치고 이기적인 그리고 원하는 것은 뭐든지 가져야 되는 그런 고집스런 아이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에 대해서도 마음을 놓지 않는 그런 여자였다. 죽을 때도 가져갈 수 없는 한 순간의 쾌감을 위해 그녀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변태적이고 충동적인 인간으로 성장했다.

후에 깨우와 짠 두 사람이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어도 그 두 사람 사이에 팽배해 있는 증오와 연민이라는 틈은 그 어느 것으로도 메워지지 않았다. 열다섯 짜리 깨우가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 즉 정신박약아인 뿌리를 낳아 던진 후 완전히 레즈비언의 생활로 돌아가 버렸을 때에도 짠은 그녀에게 있어 애증의 대상도 되지 못했다. 짠은 그러한 깨우를 연민으로 대했다.

인간에게 있어 성적 욕망은 그렇게 별난 것이 아니라 본능이다. 이 지구상에서 종족의 번식을 추구하는 모든 동물에게 있어서 성욕은, 하등 동물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본능적 행위이다. 성적 욕망은 성적인 갈구이며 욕망이다. 사람마다 개인의 마음과 정신 속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본능을 어떻게 또 어느 정도로 통제하고 있는가가 다를 뿐,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본성인 것이다.

그러나 깨우의 경우는 달랐다. 그녀는 그 집안에 사는 여느 애들과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성체에 눈을 떴다. 짠이 애보기들에 의해 육체의 즐

거움을 알았듯이 그녀도 애보기 싸이씨이에 의해 성에 눈을 뜨고 동성애의 맛을 들었다. 싸이씨이를 그녀 혼자서 소유해야 했다. 그러나 싸이씨이는 몇 년 동안 켄과 즐기는 사이가 되었고, 이를 알게 된 깨우는 이 일이 참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 복수를 해야 했다. 그녀는 싸이씨이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인 켄에게 복수하려 한다. 그녀가 열두 살 때 집안의 남자애들이 천국여행을 즐기는 아지트였던 켄의 방에서 켄에게 복수하기 위해 우직하나 성(性)에는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남창 켄을 유혹한 사건, 즉 ‘깨우의 사건’⁹⁾은 그녀의 질투심, 또 그 나이에 얼마나 성에 밝았는가를 암시하는 사건이다.

그녀는 자신의 충동적인 성적(性的) 욕구를 자신의 성에 찰 때까지 채우려 했다. 이 마음은 응석받이에게서 나타나는 현상, 즉 어려서부터 원하는 것은 뭐든지 원할 때마다 즉시 얻음으로 해서 이미 그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그런 조급함이었다. 그녀는 무엇인가를 원할 때마다 즉시 얻어야 했다. 깨우는 그녀의 아버지 쿤루잉이 조성해 놓은 비린내 나는 분위기 속에서도 그 숨이 막히는 냄새를 전혀 느끼지 못했을 뿐더러 도리어 친숙하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방해가 되는 원인, 예를 들어 자신의 임신을 철저히 배제하였다. 아이를 원하는 짚이 자신을 임신시켰을 때 스스로 태중의 아이를 낙태시킴으로써 복수한 그녀였다. 그녀는 자신의 욕구와 복수를 위해 반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해치우는 여자다.

9) 짚이 17살일 때 켄이 자기 몸종인 싸이씨이와 오랫동안 성생활을 하는 것을 안 깨우가 켄에게 복수하기 위해 꾸민 사건이었으나, 우연히 깨우의 목소리를 듣고 오해한 짚이 깨우를 구출하려 켄의 방에 뛰어들으로써 사건이 180도로 뒤바뀐 사건이다. 깨우의 고탈소리에 집안식구들이 달려오자 깨우는 짚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침대에 손과 발을 묶었다고 거짓말하여 큰 사건으로 비화시켰다. 이 사건으로 짚은 그 집에서 축출당하고 남남이 된다. 켄도 이 사건으로 죄책감을 느껴 그 집을 떠난다.

그녀는 째이 피젯으로 간 후 분르엡과 동성애를 즐겼으며 자기 뱃속의 아이까지도 미워하는 여성이었다. 이복오빠, 카쩨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임신 후 배가 불러오자 자기 자신만을 아끼는 이기적인 그녀는 자신을 몹시 미워한 나머지 우울과 침묵 속에 자기 자신을 가두어 두고 태중의 아이에게 그 화를 풀었다. 태중의 어린애(쁘리)는 채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불운했다. 세상구경을 했으나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 친아버지가 누군지 밝혀지지도 않았으며 그래서 친아버지의 성을 이어받지도 못했다. 뱃속에서 아직 형체도 갖추기 전부터 아이에게 욕과 저주를 퍼부었던 그녀는 아이를 출산하면서도 산과 앞에서 공공연하게 “복도 없는 새끼, 내가 잘못된 나쁜 년이지. …… 그거 참 썸통이다. …… 그 남자와 놀고만 싶었는데……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Utsana 2001: 315) 라는 자조 섞인 악담을 자신과 아이에게 퍼붓는 여자다.

또한 어머니로서의 모성은 그녀의 사전에는 없었다. 뿌리를 출산한 후에도 그녀는 분르엡을 독점하기 위해 “출산회복”을 이유로 들어 분르엡의 방에서 단 둘이 지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부모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자기가 낳은 아이를 절대로 돌보지 않을 것”(Utsana 2001: 316)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여자였다.

깨우는 성^性에 관한 한 아버지와도 경쟁을 하는 그런 여자다. 째이 피젯으로 떠난 후 깨우는 쿤루엡과 헤어져 고향으로 내려가겠다는 분르엡을 설득하여 동성애관계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분르엡과 쿤루엡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카쩨과 관계하여 임신하였다. 그 애가 바로 뿌리다. 깨우는 자기와 동성애 관계에 있는 분르엡을 찾아와 성관계를 하는 아버지가 미워 아버지에 대한 복수로 이복 오빠인 카쩨에게 접근하였던 것이다.

깨우의 레즈비언적 성향은 뿌리를 낳은 후 본격화되었고 노골화되었다. 마침내 그녀는 남자처럼 옷을 입고 행동했다. 머리를 사내애처럼 짧게 자르고 의상도 당시의 남자처럼 바지와 목선이 둥근 셔츠를 즐겨 입었다. 짚이 시골에서 돌아온 후 그녀는 분르엉에게서 떨어져 나가 따로 자신만의 왕국을 형성하였다. 그녀는 집안에 있는 본채 이외의 건물 중에서 가장 큰집을 골라 자신의 신분에 맞도록 수리하고 새로 꾸며 이사하고 집안 여자들의 나이가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그녀들을 매료시켰다. 그 집의 가장이자 진짜 남성인 짚은 집안의 여성을 사이에 두고 레즈비언 여성과 경쟁상대가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성생활을 십여 년 간 지켜보면서, 어렸을 때는 강한 아버지의 비호 밑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좋아 아버지만 따랐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왓을 비하하고 멀리했다. 쿤루엥과 왓 사이에는 사랑이 당초부터 없었고, 깨우에 대한 교육방법도 달랐기 때문이었다. 깨우는 자신의 칭이면 무엇이든 들어주는 아버지로부터는 쾌감도 느꼈고 만족감도 느꼈으나 자신의 그른 행위를 나무라는 어머니와는 멀 수 밖에 없었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유보되고 깨우의 성격상 그 감정이 적대감과 분노로 대치되며 내적 손상을 입은 깨우는 동성애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의 욕구에 반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상대는 누구든지 간에 증오했다. 나중에는 아버지도 증오했다. 여성으로서 미워했으며 또 경쟁자적인 입장에서 증오했다. 그러므로 그녀에게 있어 출산은 뿌리 한 번 만으로 족했으며 결국에는 남성과의 성관계 그 자체를 혐오하게 되었다.

현대에는 동성애가 죄악도, 정신병도 아닌 일상적인 사실로 간주되지만(볼스웁 1999: 88),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경우이다. 깨우는 이 작품에서 성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

는 모든 성욕과 성감, 그리고 추함의 상징이다. 깨우는 제2의 쿤루엥, 아니 그 이상의 인간의 탈을 쓴 미치광이 인간이다.

2. 사회구조의 희생자와 선업으로의 귀결

(1) 가련한 주인공 짠 다라의 운명과 악업소멸자로서의 입명왕생

짠 다라는 이 소설의 구술자이자 주인공이며 방관자이다. 그간의 난잡한 생활을 접고 마음의 평온을 찾으려는 사십대 초반에 그는 타고날 때 받았다는 오천 발의 총알을 다 써버린 허무한 남성이다. 세상에 태어난 후 철이 들 때부터 너무나도 자신에게 잔인하고 무지하게 대하였으므로 친아버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미워하고 증오했던 쿤루엥보다 10년 정도나 빠르게, 바로 쿤루엥의 모습이 문득 자신 앞에서 있었던 것이다.

네 살 때 친아버지라고 믿었던 쿤루엥과 어머니처럼 따르고 믿었던 왓 사이의 성행위 장면을 바로 옆에서 목격했고(Utsana 2001: 50-51), 그 후 그의 애보기로 들어온 아버지 여자들의 손끝에서 성의 재미를 배웠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얼마 안 되어(5-6살 때) 그가 존경하는 엄마 사진 앞에서 하녀와 성행위를 하고 있는 친아버지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¹⁰⁾ 열 살이 조금 지나서 직접 성을 체험한 짠은 하렘 같은 집에서

10) 짠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등학교 길에 쿤루엥이 머무는 본채 대청에 걸린 그리운 엄마, 다라의 사진을 마주하고 인사를 했다. 어느 날 엄마 사진 대신 쿤루엥의 사진이 걸려있음에 놀란 짠이 엄마 사진을 찾아 울며 집안을 뒤지다가 사진이 엄마가 사용하던 방으로 옮겨졌음을 알게 된다. 사진을 찾기 위해 그 방으로 가서 문을 열었을 때 쿤루엥이 엄마의 사진 밑에서 하녀 말리와 섹스를 하는 모습을 본 것이다. 이로 인해 짠은 가오리꼬리 채찍으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집안의 시신안치소였던 녹색건물에 감금되었다.

자연스럽게 집안 내의 문란한 성문화를 오관을 통해 경험하고 받아들였다.

짚은 동북부로부터 그 저택의 찬모인 어머니 품을 찾아 온 후 짚의 아래층에 거주하게 된 켄의 지도하에서 벌써 중학교시절부터 성에 눈을 뜨고 켄의 방에서 소위 ‘천국여행’이라고 표현한 성을 맛봄으로써 총각 딱지를 떼었다. 켄의 대상은 쿤루엥의 여인들이었다. 이 사실은 쿤루엥만 집안의 여성을 바꿔가며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여성들도 집 안밖의 남성을 바꾸어가며 즐긴다는 당시의 성문화를 폭로함을 의미한다.¹¹⁾ 흔히 말하는 평범하고 완벽한 삶은 학문, 일, 사랑, 결혼,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은 물론 건전한 사회와 국가를 창조한다는 말은 이 집안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 집에서 성행위는 일상생활의 하나인 것이다.

짚이 열 살을 좀 넘어서면서부터 천국여행을 체험한 사실은 그 집의 분위기 또는 그 집안 분위기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것을, 또 어린 시절의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집은 어린애를 어른으로 만들 수 있고 신으로 만들 수 있으며 악귀로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 후 그는 가끔 켄의 방에서 천국여행을 즐겼지만 이모의 교육으로 쿤루엥의 여인과 그 여인들이 낳은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쿤루엥을 친아버지로 알고 있었으므로 아버지의 여인이나 아이를 건드리면, 그것은 바로 ‘죄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11) 방콕의 부유층 집안뿐 아니라 농촌에서도 당시의 성문화는 비슷한 것으로 간주된다. 짚이 피젯에 3년간 있는 동안, 그곳에서 동네 처녀와 유부녀로부터 또는 동네 어른들로부터 성의 대상으로, 남편으로, 애인으로 또는 사위로 유혹을 받았으며, 그가 목격한 동네 사람들의 성생활은 다른 사람의 눈에 노골적으로 띄지만 앞으면 어디서나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이다.

짚이 ‘깨우의 사건’에서 묵비권으로 맞서자¹²⁾ 쿤루엥의 분노는 극에 달해 총까지 들이대며 “네가 쓰는 성(姓)은 내 성(姓)이다. …… 너 같이 친한 것에게는 난 내 성을 쓰게 하고 싶지 않다. 너는 그 빌어먹을 쌍놈의 피를 이어받은 ‘짚’이다. 지금부터 넌 이 집안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Utsana 2001: 152-153)라는 말 한마디로 방콕의 저택에서 또 그의 가문에서 쫓아냈다. 이 사건으로 자신과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쿤루엥과의 관계를 알게 된 그는 엄마의 이름 ‘다라’를 자신의 성(姓)으로 하여 ‘짚 다라’로 개명하고 등록한 후 이모의 안내로 엄마의 고향 피짚에 가서 3년간 있었다. 그곳 사람들의 성생활 또한 개방적이었고 유희이 많았지만 그는 금욕생활을 고수하고 열심히 농사일에 열중했다.

그가 20세가 되던 해에 이모가 피짚으로 찾아와 아버지를 밝히지 않는 아이를 임신한 깨우의 신랑감으로 갈 것을 권했다. 20년 전에 짚의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위해 하셨던 것과 똑 같은 경우였다. 짚은 어머니의 집을 다시 양도받는 조건으로 깨우와 결혼하며 쿤루엥 집안의 얼굴을 세워준다. 짚을 대신한 대리인의 자격으로 외할아버지가 이모와 함께 모든 일을 주선하고 결혼식 준비도 해 주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어머니 집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고 쿤루엥이 그간 차지하고 누렸던 모든 것을 짚은 자기가 제일 잘 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빼앗으며 복수를 시작했다. 짚은 그의 재산과 여인을 하나씩 빼앗는 일부터 시작했다.

12) 그가 깨우가 거짓말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묵비권으로 맞선 것은 그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가 아니라 그 나름대로 복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사건의 진실을 아는 깨우는 이미 그녀 스스로에게 그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였고 그 왜곡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므로, 또 그 사건으로 짚이 쿤루엥으로부터 아주 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계산에 넣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그녀가 계획한 사건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여 그녀가 즐길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양 실망할 것이고 실망했기 때문에 고통 받을 것이며 이 사실은 그녀의 정신적 건강을 쉽게 망가뜨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바로 이것이 ‘이에는 이, 귀에는 귀로 갚는 그의 복수 방법이었다.

쿤루엥에 대한 복수는 매우 성공적이었으나 깨우와는 계속 평행선이였다. 어느 면에서는 더 사이가 벌어졌다. 그들은 호적상의 부부일 뿐이었다. 그는 첫날밤부터 독신자 남편이 되었으나 대신 밤마다 분르엥이 그의 신방으로 찾아왔다. 그리하여 40대 초반에 총알 오천 발을 다 써버리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다. 왓은 사십이 넘어서자 20대 처녀 시절부터 별렀던 일을 결행하여 낙향한 후 승려가 되었다. 뿌리와 쿤루엥, 깨우, 분르엥을 짠에게 부탁하고 떠났다.

2차 세계대전 중 방콕에 연합군의 폭격이 단행되자 쿤루엥은 마당에 방공호를 팠다. 어느 칠혹 같이 어두운 밤, 하늘은 폭격기의 요란한 굉음과 폭탄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고사포 쏘는 소리로 시끄러웠고 동시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쏘아대는 조명탄 불빛과 적의 동태를 살피는 굵은 광선, 대포알이 나갈 때마다 대포에서 발산되는 붉은 빛이 눈을 어지럽게 만드는 속에서 식구들은 모두 방공호 속으로 피했다. 그런 소란 속에서 깨우와 분르엥은 방공호로 피신하는 대신 분르엥의 침대 위에서 서로 동성애의 기쁨을 즐기고 있었다. 두 사람이 걱정되어 온 집안을 헤매다 분르엥의 방으로 들어간 짠을 본 깨우는 내심 놀랐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그 몸짓을 늦추지 않고 도리어 멈추려는 분르엥을 리드해 나갔다. 짠은 조용히 돌아섰다. 이날 그는 방공호 속에서 정숙하고 건강한 여인 라미앗의 마음을 얻는다.

짠은 자신의 아이를,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하나쯤 갖고 싶었다. 정작 간절하게 갖고 싶은 아이는 분르엥과의 사이에서 낳을 아이였으나 그녀가 카쩠을 낳고 바로 불임수술을 했으므로 불가능했다. 다음으로는 뿌리에게 정성을 다하는 정신적인 결합이 없는 라미앗이었으나 그녀 역시 불임이었다. 마침내 깨우에게 고개를 돌렸으나 그녀는 단번에 거절해 버렸다. 그러나 분노와 아기에 대한 욕심으로 깨우에게 성폭행하다시피 관계를 가져 임신을 시키는 데는 성공했

으나 사산하고 말았다. 깨우는 완력으로 당할 수 없는 잔을 대신하여 “애가 생긴다 해도 그 앤 세상구경 못할 거야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못 해!”(Utsana, 2001:354) 라며 복수의 칼을 태중의 아이에게 들이대었던 것이다.

사십이 넘은 그에게 아이가 없다. 있는 것은 아버지 성도 물려받지 못했고 영원히 성장하지 못하는 덩치 큰 어린이에 즉 정신박약아 빠리 뿐이다. 늘 웃고 다니는 빠리는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다. 경제적으로는 외할아버지와 이모로부터 상속받은 후 방콕에서 몇 채 안에 드는 거부가 된 그였지만 마음은 늘 허전했고, 어머니에 대한 향수는 여전하다.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어머니의 젖 맛을 못 보고 우유로만 성장한 잔은 어머니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젖가슴에 대한 갈증이 적지 않다. 그 갈증은 이모의 가슴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었다. 성장하면서 그가 소녀의 유방에 유달리 애착과 갈증을 갖게 된 것은 그런 이유이다. 이 증세는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없으며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선이 되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중요 요인이 되었다. 여성편력에서도 그는 연상의 여인에 대해 정신적으로 더 매력을 느꼈다. 그가 분르영의 탄력 있는 큰 가슴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녀의 등에 얼음을 문질러 더위를 잊게 해줄 때 그녀의 유방에 손이 선뜻 간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잔이 40세가 넘어 자신의 입장을 되돌아보고 업보에 대한 생각과 함께 그 업보가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현생에서 매듭을 풀어보려는 노력을 한 데는 엄마 다라에 대한 사랑도 있지만 하이썬스에 대한 아가페적인 사랑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의 가슴 한 구석에는 늘 하이썬스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모성에와는 다른 이성에 대한 아가페적 사랑이 그의 가슴 저변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끝으로는 엄마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과 존경심은 하이썬스에 대

한 마음과 일맥상통하고, 그 마음은 왓이 출가한 후 고통을 감내하고 사랑을 펴는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하이썬스는 짚이 열다섯 살 때 야간 영어 학원에서 만난 학생이다 (Utsana 2001: 354). 그녀는 학원에서 짚의 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초라한 연립 주택에 사는 가난한 무슬림 인도인의 딸이다.¹³⁾ 단정하고 수동적이며 청신한 여성이다. 짚보다 2년 연하인 그녀는 키가 크고 날씬한, 좀 여윈 듯한 체구에 피부가 가무잡잡하여 누구나 한 번 본 사람은 다시 한 번 쳐다보게 만드는 여성이다. 그녀의 호박색 머리카락은 어깨 위에서 나풀거렸고, 눈은 슬픔을 머금었으며 조용하고 말이 없었으나, 웃을 때에는 어느 것에도 비길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성이다.

그는 하이썬스를 사랑했다. 새하얗고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다. 그녀를 생각만 해도 저절로 웃음이 나고 몸과 마음이 똥똥 뜨는 것 같이 좋았으며 그녀와 길을 걸을 때는 다른 어느 것에도 눈이 가지 않았다. 같이 걷는 동안 두 사람은 별로 말을 하지 않고 가끔씩 미소만을 나누지만 마치 아름답고 감미로운 노래를 들을 때처럼 편안함과 만족스러움을 느꼈다. 하이썬스는 그에게 여신과 같은 존재로서 최후의 진실하고 유일한 여인이다. 그래서 그는 하이썬스를 혼자서 사랑하고자 했다. 그를 이상하게 여긴 켄이 “난 여러 날 동안 기다렸는데 도련님은 아직 나한테 한 번 그 미인의 맛을 보여준다는 말이 없네요 같이 나누어 먹어야 제가 수고한 보람이 있지요. 아니면 그 미인이 다 늙어빠질 땐 기다리라고요?”라며 하이썬스와 즐기게 해 달라고 조르자 짚은 “내가 여성 하나를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싶다는 게 어때서? …… 그녀와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어때서? …… 그리고 넌 네 마누라를 남

13) 작가가 무슬림 여성을 이상형 여인으로 삼은 것은 무슬림이 여성의 정조를 지키는 여성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그녀를 야간 학교에서 만난 것은 당시의 학생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이소설이 사실적임을 말하고 있다.

보고 같이 자라고 내 줄 거니?”(Utsana 2001: 83-85)라며 거절하고 알아듣도록 이야기한다.

짠이 사랑이 무언지 구체적으로는 몰랐으나 집에서 쉽게 목격되는 성생활과 자기의 사랑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스스로에게 하이썬스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도 동의했으며 받아주었다. 그녀에 대한 짠의 마음은 짠 혼자 마음의 길을 따라 제 감정 속으로 들어와 조용히 그리고 깊게 퍼졌다. 열일곱 살까지 한 순간도 느껴본 적이 없는, 이때까지와는 다른 느낌으로 냄새를 감추고 있던 꽃다발에서 풍겨 나오는 은은한 것이었으며 우리 인간의 몸 구석 구석에서 나오는 이글거리는 욕망과는 다른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밤이나 낮이나 그녀를 그리워했던 그의 사랑은 기쁨이었고 행복이었다. 행복 또는 불행과 사랑은 그 가치와 결과가 사실은 같은 것이기에, 또…… 사랑해서 행복할 것인가? 아니면 불행할 것인가는 조금도 차이가 없기에 자서전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저 먼 피안의 세계에서 빛나고 있는 별처럼 멀리 떠나간 하이썬스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짠은 분르엥과 성을 즐기면서 마음 한 끝으로는 하이썬스를 생각한다. 육체적으로 행복하면 할수록 하이썬스를 더 그리워했다. 그는 그녀를 육체적 관계에 끌어들이지 않고 순수하게 정신적으로 사랑한다. 그가 한가로이 쉬며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때는 그가 하이썬스와 둘이 있을 때였다. 그녀와 있을 때 그는 성적인 것은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시를 쓰듯이 맑고 순수해짐을 느낀다. 그녀가 이러한 그의 순수한 마음의 호소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도 없고 답장도 하지 않지만 그를 바라보는 하이썬스의 천진하고 순수한 표정과 그윽한 눈길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말보다 더 분명하고 훌륭한 답이 되었다. 우리 둘은 사랑하고 있다는…….

하이썬스가 사망한 후 짠은 숨을 쉴 때마다 하이썬스의 이름을 시구처럼 되뇌었으며 분르영이 주문한 잡지에서 하이썬스라는 꽃을 본 다음 집안 가득 하이썬스로 채우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눈이 내릴 정도로 추운 날씨에서 기를 수 있는 화초라는 것을 알고 단념한다. 그러나 그녀와 관계된 어떤 하나라도 가까이 두고 싶다는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 그런 이름을 가진 보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로 에메랄드였다. 그래서 에메랄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끼고 다니려고 했으나 그가 원하는 크기의 반지는 자기 목숨보다 값이 비싸다는 것을 알고 포기하고 월야향으로 대신했으나, 후에 경제적으로 능력이 생겼을 때 하이썬스 반지를 장만해서 손가락에 끼었다.

(2) 영원한 모성 왓의 교화와 영향

이 소설에는 네 명의 어머니가 등장한다. 다라, 분르영, 깨우 그리고 왓이다. 짠을 낳아준 엄마인 다라는 길러준 어머니인 왓과 일심동체적인 인물이다.

다라는 불의의 사고와 고통 속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 간신히 피랍 상황에서 벗어나 집으로 왔을 때는 임신한 몸이었으므로 아무 소리 못하고 집안 어른의 주선에 따라 결혼했다. 그녀는 모욕감과 수치심 그리고 회한으로 방밖을 나가지 않고 우울과 침묵 속에서 나머지 7개월을 보냈다. 누구의 아이인 줄 모르지만 그녀는 자신의 뱃속에서 10개월 간 있었던 아이에 대한 애정이 있었다. 그 애정은 그녀가 극심한 산고 속에서도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저를 대신해서라도 잘 길러주세요”(Utsana 2001: 198) 라고 말한 당부 속에 나타난다. 비록 뜻하지 않은 사고로 임신했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본래 심성이 아름답고 순수한 여인은 죽지 못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이혼남과 결혼한 후 침울하게 지냈다. 그렇지만 뱃속의 자식에게는 엄마로서의 마지막 정과

염려 그리고 걱정을 보인 것이다. 세상의 다른 어머니와 똑같은 애정이 었다.

그러한 다라의 마음은 다라의 사촌 여동생이자 자신을 납치하여 맨 먼저 능욕한 남자 째의 약혼녀인 왓¹⁴⁾에게서 그대로 나타났다. 인간의 존엄성은 다른 인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데서 출발한다. 왓 이모는 째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다. “내가 여기 온 건 언니 때문에 온 거예요 와서 산 것도 언니를 위한 것이었어요 째은 제 조카 이상이에요 제 자식 이상이에요 이 째을 알아주세요 난 자식이 없어요 당신이 잘못 길들이고 가르친 악마같이 잔인한, 피도 눈물도 없는 어린애만 있어요…….”(Utsana 2001: 143-144) 라는 이모의 말을 듣는 순간 이모의 마음을 읽은 째은 이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이 왈각 치밀었다. 째이 왓에게 아 들인 것처럼 왓은 째에게 어머니였다.

째은 왓을 존경하고 신뢰했듯이 엄마에게도 각별했다. 쿤루엥이 분 르엥의 집으로 이사하고 깨우가 분르엥과 방을 같이 쓰게 되면서 그는 자신의 방을 쿤루엥에게 내주고 본채로 와서 명실 공히 그 집의 새로운 가장이 되었다. 그는 본채에서 쿤루엥의 방 대신에 예전 엄마의 방을 사용했는데, 이유는 쿤루엥의 더러운 생활의 잔재를 건드리기 싫었기 때문이었다. 또 한 가지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다. 엄마의 손때가 묻은 오래된 물건이 섞여있는 방에서 잠을 잔 첫날 아침은 정말 상쾌했

14) 방콕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자이자 미인인 고아치녀. 왓의 약혼자인 째을 위시한 시골 건달 세 명이 다라를 납치해서 한 달포 간 유린했던 사건이 피짚에서 일어났다. 경찰은 비밀리에 수사한 결과 다라와 두 명의 건달을 찾아 냈지만 째은 찾지 못했다. 두 명의 건달에 의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었다. 두 명의 건달은 처벌 받아 사망했고 다라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라는 홀몸이 아니었다. 다라는 째을 낳고 사망했는데, 이 건달때 두목 째이 왓의 약혼자였다. 왓은 이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방콕으로 달려와 사촌언니 다라의 시신 앞에서 사죄하고 출가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려고 했지만 아들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무렇게나 내동이 쳐진 째을 찾아 찢덩이 때부터 길러주었다. 왓은 늘 승 려가 되어 사죄하려는 마음을 갖고 지냈다.

다. 그 날의 기쁨과 행복은 섹스 후의 기쁨 또는 만족보다 더 했다. 밤에도 어머니의 품안에서 잠든 것 같은 포근함과 편안함 속에서 잠들었다. 그는 그 방에 여하한 오점도 있을 수 없는 순수하고 청정한 그 분위기를 지속시키고자 애썼다. 방 밖에서는 난잡한 생활을 했어도 그 방만은 결백하고 깨끗하게 유지했다. 그 방을 그의 마음의 방, 부처님이 계신 기도의 방으로 여겼다. 엄마의 방은 그에게는 휴식처이고 더 없는 성스러운 마음의 의지처였다(Utsana 2001: 326-327).

왓은 깨우의 친어머니이기도 하다. 왓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짠을 기르지 못하게 한다는 쿤루엥의 위협 속에서 정조를 유린당하였고, 내연의 처가 되는 굴욕을 감내하면서 짠을 기르고 쿤루엥과의 사이에서 딸 깨우를 낳았다. 깨우는 아버지의 극단적인 사랑 속에서 성장하였다.

왓은 깨우를 남편 쿤루엥에게 빼앗기고 자신의 존재나 안위보다 짠을 먼저 생각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실현한 여인이다. 자신의 정조를 유린당하면서 짠의 양육에 헌신적이었고 쿤루엥의 가오리꼬리 채찍을 막아주고 치료해 줌으로써 그가 갈망하는 어머니, 즉 엄마의 젖가슴 역할을 했다. 다라의 사망과 함께 모든 것을 상실한 짠을 다라를 대신하여 지켜주었고, 깨우가 임신하자 깨우의 남편으로 짠을 추천하여 억울하게 상실했던 엄마의 재산을 도로 찾게 해 준 장본인이다.

왓과 같이 헌신적이지는 않지만 임무에 충실하고 봉사와 희생을 아는 여성으로 라미앗이 있다. 쿤루엥이 데려다 기른 라미앗이었지만 그녀는 왓의 밑에 있으며 어떤 일에도 굽히지 않고 부화뇌동하지 않는 성품의 여성이 되었다. 늘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왓의 마음에 드는 그녀는 얼굴과 외모가 깨끗하고 윤곽도 뚜렷하여 제법 잘 생겼다. 왓은 그녀가 짠과 함께 뿌리를 보살피게 한 후, 승려가 되어 속죄와 봉사의 길로 들어가 버렸다.

(3) 완전한 여인 분르엉을 통한 성애의 완성

이 작품에는 성의 화신이 여러 명, 여러 모델이 등장하나 분르엉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느 면에서는 짤이 바라는 완전한 여성으로 그려진 인물이다. 대범하고 아름다운 성품과 높은 지식의 소유자이나 주체할 수 없는 성감과 성욕을 소유한 그녀는 쿤루엉의 전처인데, 말레이시아의 페낭의 부호이자 대가문의 여성이다. 그녀는 그 집안에서 짤을 윗짜난(쿤루엉의 성) 가문의 아들로 대우해 준 유일한 여성이었다.

피부가 새하얗고 언제 봐도 반짝반짝 윤이 나며 약간 통통하여 풍만감과 팽팽함이 온몸에서 뿜어 나와 절로 탄력성이 느껴지는 그녀는 짤에게는 항상 하얗고 섹시한 여성으로 느껴졌다. 어려서부터 짤은 밤마다 꿈속에서 분르엉의 우아한 자태를 보고 성욕을 느꼈다. 열일곱에 짤의 남자로서의 성은 처음으로 분르엉의 도움을 받아 그 승리의 문에 도달할 수 있었고, 최고의 기쁨과 우아함, 당당함으로, 그리고 사나이 이름으로 그 문을 통과했다. 그는 처음에는 분르엉에게 육체적으로 끌렸으나 곧 그 감정은 깨끗하고 섬세한 애모의 감정으로 변했다. 사랑의 감정과 존경심이 욕정과 섞여 그의 가슴 속에 강하게 자리 잡아 버렸던 것이었다. 분르엉의 성감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 이 세상에 생생하게 살고 있다는 분명한 느낌을 갖게 되었다. 성의 힘으로 완전한 사내가 된 것이었다.

다라의 다비식이 있는 후에 아들 카쩨을 데리고 쿤루엉의 집으로 와 함께 산 그녀는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늙지도 않는 속칭 색이 강한 여인이다. 그녀는 쿤루엉의 정력이 약해지자 젊은 여자애들에게로 눈을 돌려 17살의 짤을 유혹해 성의 대상으로 삼았다. 짤이 피젯에 가고 없을 때는 깨우와 서로 즐겼으며(동성애), 짤이 다시 와서 거의 환갑이 될 때까지 다시 말해 그녀가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때까지 짤은 그녀의

의지처였고 안식처였다. 말년에는 하늘의 뜻에 몸을 맡기고 잔의 집에 살았다.

잔과 분르엉 사이에 있었던 첫 번째 사랑의 교접을 표현한 작가의 표현은 매우 육감적이다. 너무 더운 태국의 여름에 상류층 부인네들이 그러하듯이 분르엉도 얼음으로 몸을 문질러서 더위를 피했는데 그 일을 잔에게, 열일곱의 청년 잔에게 시켰다. 잔 다라는 엉덩이까지 싸롱을 내리고 엎드려 있는 그녀의 하얗게 빛나는 등을 얼음조각으로 문지르고 녹아내린 물을 연신 손으로 쓸어내야 했다. 그러다가 반쯤 녹은 얼음덩어리를 놓쳐 분르엉의 가슴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을 때 그녀가 몸의 한쪽을 들어 그에게 꺼내라는 시늉을 했고 잔은 얼음을 꺼내는 대신 그녀의 유방을 손 가득히 잡고 그녀의 등을 입술로 애무했다. 그런 잔을 밀어내지 않고 몸을 뒤집고 똑바로 누워 잔을 뚫어지듯이 바라보며 분르엉은 “알겠니? …… 뭔가 얘기해 줄 게. …… 난 지금 네 아버지와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단다. …… 그와 …… 나는 …… 어쨌든 나는 끝낼 생각이다. …… 너는 정말 나를 많이 도왔구나. …… 너는 청년이 됐어.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걸 알겠니? …… 너는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알겠지? …….”(Utsana 2001: 131)라며 그를 유혹하여 쿤루엉을 대신할 성의 대상으로 선택했다. 그때의 짜릿함을 작가는 잔의 입을 통해 “신발을 신을 때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발이 신발 속으로 들어갔을 때 신 속에 들어가 있던 전갈이 여러분의 엄지발가락을 물었을 때 경악과 동시에 그 아픔이 전신으로 쩍악 퍼지는 전율을 느끼게 되지요. 분르엉도 역시 저에게 그런 경악감과 경이감을 주었습니다. 전갈과 다른 점은 짜릿하고 달콤하다는 것이지요 …….”(Utsana 2001: 129)라고 표현했다.

분르엉과 잔의 관계는 육체적 관계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집안에서 영어책을 읽을 줄 아는 유일한 여성이었고 책벌레였다. 잔도 그 집

서재에서 많은 책을 읽었고 영어책도 그녀의 도움을 받아가며 읽어 그 수준이 높아졌다. 서재에서 그 두 사람은 정신적으로 안정되었고 평온했다. 분르영은 그녀의 생활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충되어 정상적이 되었고 짬의 인생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으로 채워진 것이었다.

III. 업보사상의 구조적 분석과 그의 새로운 전개

불교도들이 그런 것처럼 태국인들은 업보를 믿는다. 현생의 삶은 전생에 쌓은 선업과 악업의 결과이며, 현생의 선업과 악업은 내생을 결정짓는다고 믿는다. 인과응보의 법칙에 집착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과거(전생)나 현재(현생)의 업보, 즉 “감(Kamma 또는 Karma)”에 의해 설명된다고 본다. 이 업보는 운명적이거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의해 부분적이거나 더 낮게 또는 더 나쁘게 고쳐질 수 있다고 여긴다. 자신의 노력에 따라 악업의 매듭이나 고리가 느슨해지거나 풀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노력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착하고 따뜻한 마음과 남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의 마음 또는 연민의 마음을 직접 실천하는 것이다. ‘탐분’하는 행위와 마음도 이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 소설의 중심 사상도 인과응보, 즉 업보이다. 작중 인물인 왓, 짬 및 깨우와 쿤루영과의 관계, 쿤루영과 왓의 관계, 왓과 다라와의 관계, 왓과 짬의 관계, 그리고 짬과 깨우 및 짬과 분르영의 관계는 모두 전생과 이생의 인연과 업보를 근간으로 한 비정상적인 관계이다(Ranjuan 1977). 작중인물의 서로 물고 물리는 업보관계를 풀어 내세에는 모두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행위자, 즉 탐분을 하는 행위자로 짬과 왓을 작가는 설정했다. 속세에서 업보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법을 실천하는 구원자로서

잔을, 그리고 속세와는 다른 세계인 사원에서 승려가 되어 죄업을 씻으려는 구도자로서 왓을 내세움으로써 이 소설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온갖 업보를 풀어내려고 했다.

우선 작중인물간의 업보관계를 부모대의 업보관계와 자녀대의 업보관계로 나누어 보기로 하자. 부모대의 업보관계는 쿤루엥과 다리, 분르엥 그리고 이모, 네 사람 간, 또 각각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당시 태국사회 상류층의 공공연한 모습으로 다라와 왓을 제외한 쿤루엥과 분르엥은 자신의 행위, 즉 업보에 대해 무감각하다. 몸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행위하는 인물이다. 사회적 지위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행하는 영향력의 관계다. 소설을 읽으며 독자는 쿤루엥을 자신의 지위와 부를 이용하여 약한 지위에 있는 여성을 유린한 파렴치한 인간으로 매도한다. 또 전처를 다시 집으로 들여오고 언니에 대한 죄업을 씻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조카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왓을 농락한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인물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실은 당시 상류층에서는 흔한 매우 사실적인 모습이다(Sathien 1981). 독선적이고 가부장적이며 이기적인 상전 쿤루엥의 입장에서는 못 할 것이 없다.

그런데 자녀 대인 잔이나 깨우의 삶과 업보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주위환경에 의한 희생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성이 문란한 가정에서 보고 듣고 교육받은 것들을 비롯하여 아버지의 여성에 대한 행위를 바로 곁에서 보며 깨우는 아버지의 성격을 빼닮았으며 동성애자가 된다. 깨우의 이러한 변모는 아버지와 그 가정이라는 환경의 탓도 있지만 아버지에게 대한 복수심과 결핍된 사랑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잔 또한 어려서부터 이모의 극진한 보호와 사랑을 받았으나 쿤루엥의 방해와 집안 내 여성, 즉 쿤루엥에 의해 성에 노골화된 여성들에 의해 너무 일찍 성에 눈을 떴다. 이러한 환경 외에도 그가 후에 쿤루엥 못지않은 인물로 전락

한 것은 엄마의 젖가슴에 대한 애착과 쿤루엥에 대한 복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깨우와 짠은 환경과 절제하지 못한 복수심 및 잘못된 사랑에 의한 사회의 희생물이다.

사십대 이전에 있었던 짠의 삶은 그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이었다. 그가 자신의 업보의 올라미를 떨쳐버리고 벗어나기에는 그는 너무 어리고 또 나약했다. 논씨 니미붓 감독(2001)의 말처럼 세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나이부터 심신 양면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고 정신적 지주마저 상실한 짠이 성에 집착한 사실은 숙명적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윤리적으로 '불량한 삶' 속으로 빠져들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출생 이후 계부의 박대 속에서 계부의 성 '윗싸난'을 사용하면서 성장한 것도 그의 업보이기도 하다(Ranjuan 1996: 443).

그러나 짠은 왓의 교육덕분으로 소년기에 인간의 윤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랬기에 그가 켄의 방에서 천국여행을 즐겼어도 쿤루엥의 여인과 그 여인들이 낳은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았다. 쿤루엥, 즉 아버지의 여인이나 아이를 건드리면, 그것은 바로 '죄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짠은 쿤루엥을 아버지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쿤루엥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기심뿐이다. 자신의 몸이 원하는 대로 살던 그가 50대 후반에 본체를 떠나 전처인 분르엥과 함께 살 것을 제안하는데, 이는 그가 불교에서 말하는 자신의 행은(行蘊)에 대해 알고 마지막을 분르엥에게 의탁하고자, 왓이 그의 곁을 떠날 것에 대비하여, 또 그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떠나자 홀로 남은 쿤루엥은 여생을 분르엥에게 의지해보려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거처를 옮긴 것이다. 이로 인해 쿤루엥은 가장의 위치에서 기식자의 위치로 전락하고 대신 짠이 명실상부한 가장이 되었다.

그러던 쿤루엥이 어느 날 분르엥과 잔의 성관계를 목격하고 쓰러져 식물인간이 되어버렸다. 자신의 허물은 인정치 않고 잔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과 허물을 묻는, 그래서 충격을 받아 쓰러진 이기적인 그다. 쿤루엥이 네 살짜리 잔에게 보여주었던 것과 똑같은 업보의 실체를 육체가 시들어 가는 노년기에 그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던 것이었다. 이것도 역시 쿤루엥의 업보이고 잔의 업보이다. 작가는 태국인들 현생에서 한 일의 업보가 내생에 받는다는 통념을 깨뜨리고 업보는 언제고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태국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업보는 잔과 깨우의 운명적인 결혼이다. 쿤루엥이 다라와 잔에게 했던 악업은 그가 아직 내생에 들기 전에 업보로 보답된 것이다. 깨우가 카쩨의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비를 밝히지 않자 20년 전에 다라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쿤루엥도 딸을 위해 가문의 명예를 위해 잔을 받아들였다. 잔이 내건 조건도 20년 전에 그가 요구했던 것과 똑같다. 이때 잔이 내건 조건은 잔이 쿤루엥에게 행한 최초의 복수이지만 엄마 다라의 명예와 재산 회복이다.

위에서 언급한 업보관계를 다 받아들인 인물은 승려가 된 왓 이모와 재가신도 잔이다. 이모 왓은 잔이 젊었던 20대에 출가하여 구도의 길로 들어갔으며, 힘없는 40대 남성이 된 잔은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쿤루엥과 조용히 마지막 갈 날만 기다리며 간간이 이야기동무가 되어주는 분르엥, 영원히 연민의 정을 떨쳐낼 수 없는 레즈비언 깨우, 정신박약아 뿌리를 마지막까지 돌보아주고 거두는 일을 한다. 전생과 이생에서 얻은 그의 업보를 풀기 위해 이모가 편안한 마음으로 수도할 수 있도록 정성껏 뒷바라지를 하는 한편 한 집에 살고 있는 쿤루엥, 깨우, 분르엥, 뿌리의 보호자가 되고 안식처가 된다.

사십이 넘어서 자신의 길을 가려는 이모는 잔에게 “잔아. 이모 한 사람이 없어지면 이 아이가 믿고 기댈 곳이 너 한 사람밖에 없구나. 예미

라는 것은 아예 눈도 돌리지 않고 외할아버지도 저렇고 분루영은 아예 관심도 없으니. 이 아이는 전혀 남이 아니잖나? 어찌 되었든 이모를 보아서 잘 돌보아 주기 바란다. …… 너는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안식처와 의지처가 잘도 되어 주었으니까.”라며 뿌리를 부탁했다(Utsana 2001: 317-318). 그는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때 그의 마음은 자신이 뿌리 같이 어렸을 때에, 또 이 아이보다 더 어려운 지경에 빠져 생사를 헤매고 있었을 때에 이모가 거두어 길러준 것에 대해 보답한다는 뜻도 있었지만 이모처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마음과 인간적 차원에서 받아들였다. 짠은 뿌리의 귀에 대고 “내가 네 어머니가 되어주고 아버지도 되어주마. 그리고 외할아버지도 되어 줄 수가 있단다.”라고 속삭였다(Utsana 2001: 318). 그 자신이 현생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고 또 그 사람들 사이에 얽힌 악연을 풀어야 할 장본임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또한 왓 이모의 출가의 뜻을 받아들이고 쿤루영도 받아들인다. 이모의 의지를 막는 것 또한 큰 죄를 짓는 것임을 그는 가슴이 서늘하도록 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출가하려는 숭고한 마음을 가진 이모에게 온갖 술수와 협박을 다 사용하여 성의 노리개로 삼은 쿤루영은 이미 업보를 받아 산송장이 되었음을 짠은 안다. 그래서 소나 물소보다도 못한 철면피이며, 핏덩이의 생사에 관심도 두지 않던 자기를 미끼로 순수하고 착한 이모를 희롱하고 자기까지 차버린 위인을 그는 이모의 큰 뜻을 받아 돌보아주는 것이다.

짠은 하이썬스의 사랑을 얻음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느꼈고 그녀의 죽음과 함께 사랑은 그 깊이를 더 했다. 중요한 지표나 가치를 찾지 못한 인생은 “다음 생을 살기 위해, 생노병사라는 인생의 윤회를 기다리기 위해, 심연에서 떠다니기 위한 야자열매 껍질만 남는 것이다. 그 이후로는 죽음밖에 없다. …… 공허한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Utsana 2001: 377)라는 생각으로 오래 동안 괴롭혀온 고통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그 목적지에 닿고 싶은 잔이었다. 고통을 받고 스스로를 연민하면서 잔도 출가하는 문제를 생각하기도 했으나, 그 의도가 순수하고 자비로운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 보고자하는 것임을 깨닫고 출가에 대한 꿈을 접었다. 불법佛法을 마음의 거울로 삼으려는 의사가 없이 출가하는 것은 부처님을 욕되게 하고 황색법외에 위험이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대신 잔은 재가신도로서 아침마다 스님들에게 정성 들여 시주하는 일과 출가한 이모의 뒤를 봐주는 일로 복을 지어보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청춘시절 연인이었지만 지금은 다 늙은 여성, 분르영을 돌보고, 아직 숨쉬기를 그치지 않고 있는 업보의 맞수, 즉 산송장과 다름없는 쿤루영을 보살피고, 아내라는 이름의 변태성욕자인 여인을 연민의 정으로 지켜보면서, 아들이라는 이름의 정신박약자 뿌리의 법정대리인으로써 재산을 지켜주고 있다. 그가 그렇게라도 살 수 있는 것은 그가 만질 수 있는 형체로써 하이썬스라는 이름의 보석반지, 즉 잔의 진정한 사랑이 위안이 되기 때문이다.

IV. 결론

이 소설은 옷싸나 플링탐이 쓴 최초의 장편소설로, 입으로만 도덕군자인 척하는 태국의 상류층인사에게는 몹시 언짢은 픽션이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이 발표되자마자 태국사회를 적지 않게 흥분시켰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 다라, 왓, 쿤루영, 분르영, 깨우, 그리고 주인공 잔은 모두 생동감이 있고 그들의 행위도 매우 새롭고 현실감이 있으나 하나같이 환경의 제물이고 희생양들이자 인생의 한 단면 자체이다. 공공

연한 사실이지만 전통적으로 금기시되어 온 성을, 당시 성문화를, 더군다나 있는 집 성생활의 속사정을 주제로 삼은 작가의 용기에 대해 존경심을 표할 정도다. 그러나 인간의 본능 속에 있는 근본적인 욕구인 성욕, 바로 이것이 이 소설의 인물들로 하여금 서로 다른 업보를 감당하도록 만들었으며 행복 불행 착함 악함 등등이 서로 뒤섞이게 만들었다.

쿤루엥의 업보는 짚과 다라를 비롯해 왓, 깨우, 분르엥 모두와 관련이 있으며 짚의 업보 또한 다라, 쿤루엥, 왓, 분르엥, 깨우와 관련이 있다. 혈연에 의한 가족이든 우연에 의한 가족이든 그 저택에 사는 구성원은 모두 서로에게 업보가 있음을 작가는 말하고 있다.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살면서 부딪치는 것 자체가 이미 전생의 업보가 끈끈했음을 말해 준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에 의해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살며 서로 좋은 관계든 나쁜 관계든 관계를 맺은 것이다. 그런데 이 악연을 끊는 사람은 누구일까?

어렴풋이 쿤루엥이 친아버지가 아님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느꼈고 친아버지가 아님을 알고 미워했으며 쿤루엥의 행위 모두를 증오하고 부정했으나, 결국 인생의 황혼기에 문득 그 증오했던 인물이 거울에 비친 듯 똑같은 모습의 자신을 발견하는 짚이다. 결국 짚은 그 업보의 결과 -곱게 늙어가는 분르엥, 레즈비언 깨우, 덩치만 큰 정신박약아 뿌리를 인간적인 정으로 떠맡고 평온한 마음으로 돌보기로 작정한다. 가족의 업보를 혼자서 순순히 받아들인 것이다. 그 길이 업보를 푸는 길임을, 성씨는 오락이자 쾌락이 아니라 책임이 뒤따르는 행위임을, 또 분수를 아는 한 인간으로써 자신의 번뇌와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고 독소가 되는 그런 욕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쿤루엥과 둘이서 지옥에서 만나 다시 쌍둥이가 되지 않으려고…….

저자는 말한다. 인생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나뻐어도 종말에는 이렇게 좋을 수도 있다고. 특히 번뇌의 극치, 즉 성에 있어서 남성으로서의

짠의 인생은 완전하고 행복하다. ‘무’라는 실존에서 ‘완전’한 짠 다라의 실존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남이 보기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인간으로서도 적지 않은 성공인 것이다. 더 바라는 것은 없다.

그래도 주인공 짠다라는 마음으로 외쳐댄다. “인생은 진정 고해다!!” 라고.

주제어: 짠 다라, 짠 다라 이야기, 웃싸나 플렁탐, 뽀라문 우나하툼.

참고문헌

- 볼스워, 잭 · 볼스워, 주디스 1999. 『진정한 성』. 홍병룡 옮김. 서울: IVP.
- Boonyong Kesathes. 1989. *Sathanaphabsatritbai*(태국여성의 현실). Bangkok: Audion Store.
- Cerves Nicholas. 1963. *Prawadisasthambachadlaekamnuangbaengrachacnabak Siam*(태국의 자연사와 정치). Sant T., Komolbutr trans., Bangkok: Kaona.
- Chai Reuangsil.. 1974. *Prawatisasthai 2352-2453 Dansanglebom*(태국사 1809-1910: 사회). Bangkok: Reuangsil.
- Jean Baptiste Pallegoiu. 1963. *Laonuangnuangthai*(태국이야기), Sant T. Komolbutr trans., Bangkok: Kaona.
- Luangwicitwathakan. 1964. *Wichakanbrongruankebrokbrud*(가정관리). Bangkok: Bannakhan.
- Ranjuan Intrakhamhaeng. 1996. *Phabchinitjakenamanyai*(소설 속의 삶의 모습). Bangkok; Tonoo.
- Utsana Phleungtham. 2001. *Reuanglebong Jan Dara*(잔 다라). Bangkok: Matichon.
- Sathien Janthimathorn. 1981. *Khonamangsu*. 11월호.
- Ranjuan Intrakhamhaeng. 1977. *Lalana*. Vol. 114. 9월 하순 편.

Abstract

Readings the Thai Novel “Reuangkhong Jan Dara” : Karma between leading characters

Kim Youngaih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ory written by Utsana Phleungtham as his first Novel was an unpleasant fiction to the people of the high society who pretended to be gentlemen and ladies, which was one reason to have made the Thai society very excited in the mid- 1960.

Characters of this story, Dara, Waad, Khunluang, Bunreuang, Kaewoo, and Jan are all vivid and realistic. However, all of them are sacrifice sheep and victims of Karma, and they are just cross sections of life.

The writer of this story is so respectable for his courage in the point that he could reveal the sexual culture, especially sexual life of the Thai high class in his story. But sexual desire as a primary and instinctive desire of human drove every character to take different Karma each other and to mix all values such as happiness, unhappiness, goodness, and wickedness.

Karma of Khunluang, for example, influenced all other characters and it's the same logic with Jan's. The writer implies that everyone in that big house has the Karma of each other regardless of the factor whether the family is formed from blood relations or just formed by chance. Life itself means their deep relations of Karma which is from their former lives or this life. All

people make relations with their contemporaries by this karma called in Buddhism. Who is the “cutter” of this Karma?

Since Jan was young, he has felt obscurely that Khunluang was not his real father, and has hated and rejected him for his all kinds of behaviors since his twenties. But he suddenly realized in the twilight of his life that his life was really same as his. Finally Jan decided to accept a good old woman Bunreuang, lesbian Kaewoo, a mentally handicapped big boy Pri as a result of his Karma, and to take care of them with humanity and tranquility. It means that he tolerated the karma of his family. It's because he came to realize that acceptance of karma is the way to solve it, that sexuality is not an entertainment or enjoyment but the responsible behavior, that his agony and pain for sexual desire are harmful and poisonous to others. Not to meet Khunluang in the hell and to be twins again…….

Writer tells us that life can be much better like this story although it starts with a bad condition. Especially the ultimate of agony, that is, Jan's life as a male sex was completely happy, because his life started with existence of “nothing” became the existence of ‘complete’ Jan Dara. His life as a human could be said successful because he enjoyed everything in his life. It couldn't be better. Nevertheless he shouted to himself, “Life is full of sufferings”

Key Words : Jan Dara, The story of Jan Dara, Utsana Phleungtham,
Pramoon Unahathoop, kamma, karma.